

# 서점가에 '여성이 쓴 책' 늘어났다

'여성파워'신장따라...창작집·연구서 등 다양

여성문인들과 여성학자들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한꺼번에 십여권의 작품을 내놓고 있는 문인들도 많은 가운데,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연구저서도 늘어 학계의 여성파워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들어 여성 문필가들과 학자들의 창작집 및 연구저서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시내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집계에서 강은교의 산문집「하나의 얼굴을 위하여」, 유안진의 「우리를 영원케 하는 것들」을 비롯해 시집부문에서는 김초혜의 「사랑굿」과 이해인의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김옥진의 「산골소녀 옥진이 시집」이, 소설부문에서는 남지심의 「우담바라」가 장기베스트셀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 한꺼번에 몇종씩의 작품을 서점에 내놓고 있는 여성작가들이 많은가하면,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도 여성학자들의 연구저서들이 부쩍 많아졌다.

## 여성 수필가들의 활약 두드러져

현재 서점점두를 장식하고 있는 여성저작물들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소설·수필·시 등 창작물 분야. 여성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은 사실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런 중에서도 여성수필가들의 활동은 가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중 첫손 꼽히는 수필가들은 신달자, 유안진, 오혜령, 허영자, 강은교, 김남조, 김후란씨 등. 유안진씨가 「우리를 영원케하는 것은」, 「그리운 말 한마디」를 포함해 7권의 수필집을 내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 오혜령씨가 신간수필집 「내 손을 네가슴에」 등 6권의 수필집을 서점가에 내놓고 있다. 그런가하면 허영자씨는 5권, 김남조씨는 4권, 강은교·김후란씨도 각각 서너권의 수필집을 내놓고 있다. 이들 여성수필가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여성특유의 섬세한 감성적 언어들 구사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중고생을 비롯한 여성독자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가하면 소설부문에서는 「살아있는 날의 시작」, 「목마른 계절」 등을 내놓고 있는 박



박경리씨

완서씨, 「밤길」, 「님」의 작가 윤정모씨, 「하늘 사랑 땅의 사랑」, 「난지도」의 정연희씨를 비롯해 최근 「시간을 위한 진혼곡」과 「그림자 밟기」를 내놓은 김문숙씨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한편 소설·수필·시의 장르를 넘나들며 활발한 창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작가들도 많은데, 우선 「토지」의 작가 박경리씨가 시집 「못 떠나는 배」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강유일씨가 콩트집 「황후연습」과 수필집 「아아, 날이 새면 집지으리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희곡작가 남정희씨가 희곡집 「서풍짜리 아르바이트」와 수필집 「잠든 거리에 흐르는 강」을 내놨다. 노은씨도 소설 「사랑이라는 이름의 고독」 등과 시집 「이제 이별입니다」, 「사랑굿」의 작가 김초혜씨는 수필집 「그대 하늘에 달로 뜨리라」, 「생의 빛 한줄기 찾으려고」, 시인 이향아씨는 수필집 「지금이 영원인 것처럼」과 시집 「눈을 뜨는 연습」 등을 내놨고 신달자·유안진씨도 각각 시집 「雅歌」, 「절망시편」 등을 비롯해 서너권의 시집을 내놓고 있다.

##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여성저작물

여성학자들에 의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저서가 늘고 있는 현상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70년대 중반 이후 여성학자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80년대에 들어 그간의 연구성과들이 속속 저서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문학이론분야와 여성학 및 가정학분야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여성에 의해 씌어진 여성학 관계도서들의 출간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회학자 이효재 교수(이대 사회학과)는 가장 많은 저서를 내놓은 학자로 꼽히는데, 「제3세계의 도시화와 빈곤」, 「분단시대의 사회학」 등 10여권의 저서를 통해 사회문제를 날카롭게 분석해 온 것에 이어 최근



신달자씨

에는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여성해방의 이론과 현실」(편저) 등을 내놓아 여성학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장인 이우정씨도 「한국여성신학의 이해」, 「여성을 위한 신학」, 「한국기독교여성 100년의 발자취」를 비롯해 「깨어라, 여성」(편저)을, 가정법률상담소장 이태영씨는 「한국이혼제도연구」 외에 수필집 「여성으로 태어나서」, 「북한여성」을 최근 발표 했다. 근로 여성의 현실과 법적 개선책을 모색한 신인영 교수(이대 법학과)의 「여성·노동·법」, 남성지배문화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재조명한 조혜정교수(연세대 사회학과)의 「한국의 여성과 남성」, 빈민여성고 아동의 문제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자유기고가 강명순씨의 「빈민여성 빈민아동」들도 최근 발표된 주목받는 저서들. 그런가하면 여성학분야에서는 전문학자들이 아닌 일반근로직여성에 의해 씌어진 책이 많다는 것도 최근에 나타난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책으로 펴낸 것들이 대부분인데, 공장노동자 최순덕씨의 「암탉이 울면」, 순점순씨의 「8시간 노동을 위하여」, 이선영, 김은숙씨의 「손에 손을 잡고」 등 현재 5.6중에 달하고 있다.

문학이론분야에서는 원로 국어학자인 이남덕교수의 「한국어 어원연구」(전4권)가 연구의 범위나 무게로 보아 가장 돋보이며, 「한중록연구」, 「조선조 여류문학연구」 등을 발표한 김용숙교수(숙대), 「李梅窓 연구」, 「許蘭雪軒 연구」의 許米子교수(성신여대) 등도 활발히 저서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30,40대 학자들의 저서출간이 대단히 활발한데, 「한국의 농요 I·II」(이소라) 「현대소설사연구」(전혜자) 「자연주의문학론」(강인숙) 「시의 기호론적 연구」(이사라) 「윤동주평전」(송우혜) 「한국사실주의 희곡연구」(김방옥) 등 국문학분야에서부터, 「어둠의 불꽃-로렌스 문학연구」(김정매) 「어두운 시대와 고통의 언어」(전



이효재씨



이인호씨

영애) 「리어왕연구」(윤정은) 등 외국문학분야에 이르기까지 여성학자들의 연구저서가 다수 나와 있다.

여성역사학들의 활동 역시 눈길을 모을만 한데, 특히 「지식인의 역사」, 「러시아지성사연구」를 내놓은 이인호교수(서울대 사학과), 「한말 근대법령자료집」(전9권) 「한국근대여성사」, 「이조여성사」 등을 발표한 박용옥 교수(성신여대 사학과)의 저작활동이 두드러진다. 한편 「조선후기 당쟁사연구」(이은순) 「조선후기문화운동사」(정옥자) 「고려왕실족내혼연구」(정용숙) 「동서문화교류사」(최소자) 「한국기독교문서간행사연구」(김봉희)를 비롯해, 「복식풍속사」(조효순) 「한국의 전통혼례연구」(박혜인) 「한국의 국과 무당」(황루시) 등 민속학분야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근에 발표된 저서들이어서 여성학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실감케 한다.

## 여성의 사회진출과 독자성향이 원인

이처럼 여성들의 저술활동이 활발해진 배경으로는, 해방이후 꾸준히 계속되어 온 남녀 차별없는 높은 교육열과 최근들어 나타난 여성들의 높은 사회의식을 들 수 있다. 특히 문학분야에서는 독자층의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여류문학인의 간사이며 출판인인 백이운씨는 「여성수필가들과 시인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데에는 독자층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의 소설과 수필집을 즐겨 읽지만, 딱히 여성작가라는 이유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한 독자의 말처럼, 여성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목받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내용으로 당당히 독자에게 어필하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최근 여성들의 저술활동은 더욱 주목 할 만하다.

— 오애리 기자